**세명의 창조신**

브라흐마 : 우주의 창조

비슈누 : 우주의 유지

시바 : 우주의 파괴

**우주의 창조**

세명의 창조신은 그들의 뜻에 따라 수많은 우주를 거쳐왔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과를 목도했으나 그들의 막강한 권능에도 불구하고 단 한가지 불가능했던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창조된 피조물들이 창조되는 순간에 정해지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피조물은 그저 완벽한 존재로서 머물 뿐 이었고, 불완전한 피조물들은 그 불완전함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단 하나의 과업을 위해 또다시 수 많은 우주를 창조/파괴하고있다.

그들은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로서 각성하기 위해서는 무궁한 번뇌와 번민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주를 불완전한 세상으로 창조하여 피조물들이 번뇌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균형과 소멸**

그렇게 창조된 우주는 수 많은 의지가 끝없이 충돌하며 균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우주가 태생적으로 품고있는 불완전함 때문에 매번 균형이 무너지고 파국으로 치닫으니 그것은 창조신들이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짐이 보일 때 마다, 비슈누가 나서서 균형을 조율했다. 그러나 창조신이 전면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준다면 번뇌로 가득찬 세상을 만든다는 계획이 무너지게 되므로, 그들의 기준으로 적당한 선에서 도움을 주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한 비슈누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우주가 창조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다음 우주를 창조하기 위해 시바가 나서서 현 우주를 파괴한다.

우리가 살고있는 우주는 몇 번째 우주일까?

지옥의 마군주 칼리는 혼돈과 멸망의 신으로

공간적 배경

* 지도 첨부

대륙 동쪽에 위치한 대나무 군락지 죽림향과 죽림향에 위치한 호박석사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호박석마을이 이 게임의 중심 배경

시간적 배경

전국시대의 개막

세상은 전란에 휩싸여있다. 황제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어, 후계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었다. 만나지 못할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에 지친 대신들은 궁을 떠났으며, 텅 빈 옥좌만이 그곳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왕이 없으니 왕을 중심으로 했던 행정체계가 무너지고 곧 혼란의 시대가 펼쳐졌다. 산과 들에는 도적들이 들끓었으나 이들을 잡아들여야 할 군인 마저도 통제를 잃고 민간인을 공격하고 수탈했다. 그때 대륙 남쪽의 제후인 남 가문이 질서를 바로 잡겠다며 거병하니 잇따라 지방의 수많은 유력자들이 천하의 주인이 되고자 군사를 일으켰다. 바야흐로 전국시대의 시작이었다.

천하삼분

황제의 죽음 이후 200년이 흘렀다. 200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는데 충분한 시간이었고, 세상은 3개의 거대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남 가문 – 대륙남쪽의 본가가 위치한 가장 큰 위세를 펼치고 있는 가문

연 가문 -

당상 연합군

특징적 배경

우편물 배달대행, 청풍

청풍은 대륙 서북부에 위치한 중소규모의 작은 상회였다. 그러나 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대륙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며 치안이 악화되자 전국 각지에 산발적으로 도적 때가 들끓게 되고 청풍은 주력사업에 커다란 피해를 입게된다. 당시 청풍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발빠르게 무장세력을 육성하여 과감하게 배달/운송업에 투자해 큰 성공을 거둔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전국 최대규모의 운송 업체로 성장하여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으며, 전국에 지점을 두고있다.

호박석사원

죽림향에 위치한 사원으로 죽림향 한가운데 높게 솟아있어 255개의 계단을 올라야 한다. 바람의 신 바유를 섬기는 신전이기도 하다. 이름의 유래는 본당 내부를 호박석으로 꾸며 놓았기 때문이다.

호박석마을

여행자, 순례자 등 여러 이유로 호박석사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호박석사원을 중심으로 사원의 계단아래에 형성된 마을이다. 규모는 약 80가구정도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숙박, 요식, 관광 산업에 종사하고있다.